

미드엔 활성화된 시즌제...韓에선 왜 쉽지 않나



해외에서는 정착해 있는 시즌제 드라마지만 국내에서는 쉽지 않은 모습이다. MBC '검법남녀'는 6월부터 두번째 시즌을 시작하지만 성공여부를 확실하게는 힘들다. SBS '열혈사제'나 JTBC 'SKY캐슬' 등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들은 대부분 '시즌2를 헤달라'는 시청자들의 목소리가 높지만 이뤄지지는 쉽지 않은 모양새다.

우선 주연급 배우들의 스케줄을 맞추기가 어렵다. 다른 배우를 투입한다면 시즌2의 구색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진행도 어렵다. 이야기의 연속성을 이어가기기

쉽지 않다는 점도 시즌제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다. 시즌1의 스토리가 그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시청자가 있는 반면 전혀 색다른 이야기를 기대하는 시청자들도 있기 때문에 보는 이들의 구미를 맞추기가 힘들다. 더 많은 제작비와 더 파격적인 스토리를 투입해야하지만 기대감이 한

보는 이들의 구미 등 맞추기 힘들어

것 높아진 시청자들을 만족시키기도 쉽지 않다.

물론 꾸준히 시즌제를 유지하고 OCN도 있다. OCN이 2010년 첫 선을 보인 '신의 퀴즈'는 한국 드라마 역사상 최초로 팬들이 직접 시즌제 청원을 일으켰고 총 다섯개의 시즌이 방송됐다.

OCN의 역대 최고시청률 기록(7.1%)을 갖고 있는 '보이스'는 최근 세 번째 시즌에 돌입했고 최근 일본 Nippon TV에서 리메이크 제작 및 방송까지 확정 지으며 해외 시청자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다.

'구해줘' 역시 연상호 감독의 애니메이션 '사이비'를 원작으로 한 두 번째 시즌이 방송되며 눈길을 끌고 있다. 마을 꼴뿔 임대구와 의문스러운 남자 전호진의 대결구도가 본격화되면서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이 외에도 '나쁜 녀석들', '처용', '특수수전 전담반 TEN' 등이 시즌

제로 제작돼 호평 받으며 OCN 장르 물을 향한 두터운 팬심을 입증한 바 있다.

황혜정 OCN 국장은 "'신의 퀴즈'부터 '구해줘' '보이스' 등 오리지널 장르물이 시즌제로 정착할 수 있었던 건 작품성과 살아 숨쉬는 캐릭터와 스토리 신선한 소재 덕분이었던 같다"고 설명했다.

'구해줘'와 '보이스'의 전시즌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이찬호 스튜디오에 따르면 책임프로듀서는 "시즌제 드라마는 시청자 팬덤을 만들어 드라마의 브랜드 확보를 꾀할 수 있는 큰 장점이고 동시에 전작을 스스로 뛰어넘어야 한다는 큰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해줘'의 경우 '사이비'라는 소재와 드라마를 관통하는 전체적인 콘셉트는 시즌과 동일하지만 기획된 드라마이다. 시즌2까지 많은 우려곡절이 있었지만 제작자의 집념

으로 두 번째 시즌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선보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보이스'는 매 시즌에 걸쳐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골든타임 내 사람들을 구해낸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주요 출연진과 제작진이 전 시즌을 이어가고 있다. '보이스' 시즌제는 배우, 감독, 제작진의 노력과 특히 작가의 헌신이 있기에 가능했다. 마침내 작가가 그려내는 시즌제에 적합한 세계관들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시즌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첫 시즌의 감독과 작가, 배우들이 의기투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합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환경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기 어렵다. 시즌제가 쉽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시즌제 드라마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는 있지만 정착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주목해야 하는 매력 셋



tvN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가 3인 3색 '컬러러시'를 유발하는 배우들의 모습을 공개했다. 오는 6월 5일 첫 방송되는 tvN 새 수목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연출 정지현·권영일, 극본 권도은) 제작 화엔담 픽처스

이하 '검블유')는 트렌드를 이끄는 포털사이트, 그 안에서 당당하게 일하는 여자와 그녀들의 마음을 흔들는 남자들의 리얼 로맨스 드라마다. 새로운 영상이 공개될수록 아주 많이 다른 배타미(임수정 분), 박보

진(장기용 분), 차현(이다희 분), 송가경(전혜진 분)의 캐릭터에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검블유'에 주목해야 하는 특별한 세 가지 매력을 짚어봤다.

내 방 창문보다 많이 보는 검색창, 신선한 소재

"저희 '유니콘'은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합니다"라는 강렬한 한마디로 포문을 연 배타미. 이는 포털 업계 1위 '유니콘'의 서비스 전략 부장인 배타미가 증인석에 앉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예측할 수 없는 포털 사이트의 뒷이야기에 궁금증을 높이는 대목이다.

동시에 내 방 창문보다 많이 보지만, 그간 드라마에서 다루지 않았던 포털 사이트라는 신선한 소재가 어떤 방식으로 풀려나갈지 호기

심이 증폭되고 있다.

아주 많이 다른 강렬한 캐릭터

아침에 일어나 지난밤 숙취에 머리를 부여잡을지라도, 출근할 때는 완벽하고 당당한 배타미. 씨익 웃으며 셔츠에 찢힌 입술 자국을 자랑스레 보여주는 박모건. 분노 가득한 표정으로 병원 복도를 걷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를 시원하게 응징하는 차현. 고민이 깊은 눈빛으로 술을 마시고, 갈어가는 뒷모습으로도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송가경. 짧은 순간에도 확고한 캐릭터 컬러가 드러나는 배우들의 모습은 '검블유'의 첫 방송을 기다려지게끔 만듭니다.

임수정×장기용의 리얼 로맨스

넘어질 뻔한 배타미를 뒤에서 잡아주고, 그녀의 변진 립스틱을 손으로 조심스레 닦아주는 박모건. 일 앞에서는 누구보다 냉철하지만, 다정한 그의 배려에 놀란 기색을 숨기지 못하는 배타미는 일로만 가득했던 그녀의 인생에 기분 좋은 변화가 찾아올 것을 예고하고 있다.

꽃잎이 흩날리는 길거리에서 서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코끝이 간질거리는 배타미와 박모건의 리얼 로맨스가 울어올 어떤 설렘을 선사할지 기대가 모인다.

한편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는 '미스터 션샤인'을 공동 연출한 정지현 감독과 김은숙 작가가 보조 작가로 필력을 쌓은 권도은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출출하고 찬란해(神心) - 도깨비'와 '미스터 션샤인' 등 tvN 잇달아 흥행작을 만들어 온 화엔담 픽처스가 제작을 맡는다. tvN '그녀의 사생활' 후속으로 오는 6월 5일 수요일 밤 9시 30분 첫 방송 된다.

'꿀 뜯어먹는 소리3' 漁벤저스와 라이브 방송→특산물 홍보 '톡톡'



이모들이 특산물을 살리기 위해 뭇했다. 이들은 울산 3대 특산물인 미역, 톳, 가지미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고정우는 "널리 알리기 위해서 방송을 한다. 많이 알고 많이 애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어벤저스 이모들은 요리 실력을 뽐냈다. 특산물로 만든 갖가지 요리가 보는 이들의 침샘을 자극했다. 라이브 방송을 지켜보던 네티즌들은 "먹어보고 싶다", "비주얼 대박이다", "가지미 미역국 맛 보겠다"면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날 가지미 미역국은 물론 톳밥, 가지미 회, 미나리 미역말이까지 푸짐한 한 상이 차려졌다.

멤버들은 특산물로 만들어진 요리들을 맛보고 감탄했다. 가지미 미역국에 대해서는 "생선도 맛있는데 비린내 전혀 안 난다", "사골을 먹은 듯하다"고 말했다.

가지미 구이를 맛보고는 "정말 맛있게 구웠다", "고소하다", "바로 집어서 먹으니 더 맛있다"고 입을 모았다. 가지미 회를 먹고 "눅눅하다", "회가 달다"며 미소 짓기도

이처럼 '폴랩소' 식구들은 어벤저스 이모들과 함께한 라이브 방송으로 울산 특산물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방송 말미에는 미나리 트로트 대축제까지 예고돼 다음주 본 방송에 궁금증을 높였다.

'폴랩소'는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10분에 방송된다.

'폴랩소' 식구들이 헤너 어(漁)벤저스 이모들과 특산물 홍보에 나섰다.

20일 오후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꿀 뜯어먹는 소리' 대우원정대에서 한태웅, 고정우, 진소희, 박나래, 박명수, 양세찬 그리고 헤너 어 이모들은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 방송은 울산 특산물 홍보를 위해 기획됐다. 한태웅이 고정우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한 것. 이들은 방송 준비 및 노래 연습에 돌입해 웃음을 켰다. '폴랩소' 식구들과 헤너 어

임재현, 방탄소년단·잔나비 등 제치고 역주행 차트 1위



가수 임재현이 방탄소년단, 잔나비 등이 장악한 '빅플 차트'를 제쳤다. 역주행 현상을 보이던 임재현의 '사랑에 연usy이 있었다면'은 21일 자정에 멜론 실시간 차트 1위에 오른 뒤 현재 오전 8시까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멜론 이외에도 올레뮤직에선 2위, 엠넷뮤직에선 5위, 소리바다에

서는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니와 네이버뮤직 등에선 실시간 차트 톱10위에 들지 못했다.

특히 임재현의 이러한 성과는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워너 'AH YEAH',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박효신 'Goodbye' 등 오랫동안 차트 상위권을 지키던 곡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지난 2018년 9월 25일 발매된 '사랑에 연usy이 있었다면'은 발매된 당시에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발매이후 이진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커버곡으로 불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역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가수의 곡이 갑자기 1위를 차지한 것에 의심을 품는 이들은 적지 않다.

2017년 7월 '클로저스' OST로 데뷔한 임재현은 작곡가 겸 프로듀서 문성욱과의 프로젝트 컬래버레이션 '웃으며 로 활동을 이어갔다. 2018년 9월 첫 싱글 '사랑에 연usy이 있었다면'을 발매하며 솔로 가수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곡은 2018년 12월 31일 발매한 '내가 죽었다'다.

오늘의 운세 2019년 5월 22일 수요일 (음력 4월 18일)



▶**띠** 쓰는 법만 배우지 말고 저축하는 법도 배워라. 쓸 때는 좋지만 목돈이 필요할 때 후회막급. 호주머니가 궁핍하다. 1, 2, 7월생 남 좋은 일만 하지 말고 내 것도 행할 때, 딱딱한 컴퓨터나 핸드폰보다 편지 한 장도 관심을 두.



▶**띠** 욕심과 열정이 넘쳐흐르지만 침묵의 기운도 넘친다. 두 기운의 조화가 필요할 때. 무조건 행하고 한 가지 일에만 충실하라. 오늘은 손에 든 것이 없으면 좋다. 잃어버릴 운이다. 사, 자, 천성끼리, 마, 비, 표 성끼와 동업은 금물.



▶**띠** 분주하지만 할 뿐 소득이 없다.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라. 분수를 지키는 것이 좋다. 과욕은 금물임을 알 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 당근도 좋은 결과가 있겠다. 미혼인 경우 청혼을 받을 운.



▶**띠** 2, 11, 12월생 등, 북쪽에서 반가운 손님이 오겠다. 행동을 주관하는 것은 마음이니 편벽됨이 없이 진실하게 대하라. 4, 7, 9월생 미혼인 여성은 남. 서쪽으로 등산이나 여행을 떠나면 배필을 만날 수. 직장일 길운.



▶**띠** 총명한 지혜로서 거래업자와 교제함이 좋은 날. 부흥발전 할 수 있는 행운이 트이는 격. 모든게 자신의 능력임을 알고 용기있게 추진하라. 4, 5, 6월생 검정색 의복은 피하라. 오늘은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함도 좋을 듯.



▶**띠** 늦가을에 서리가 내리면 풀잎은 시들어 지지만 같은 더 맛있는 홍시로 변하는 것처럼 진금을 준비한 사람은 홍시와 같다. 2, 8, 11월생 동남쪽에 길이 있을 듯. 애정운은 민영던 사람 떠나는 격.



▶**띠** 감정이 앞서는 행동은 일을 그르치는 법.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용, 닭, 돼지띠를 지배할 수 있다. 본인의 반성과 채찍질이 발전의 근원임을 알 것. 심신의 안정과 건강 관리에 힘써야 할 때.



▶**띠** 토끼, 개띠와 뜻을 합하니 만사가 형통할 운이다. 멀다고만 여겼던 친구가 힘이 되어주니 용기가 생동하는구나. 베풀만큼 되받으니 신용과 신뢰를 소중히 여길 것. 지금 매매와 투기는 금물.



▶**띠** 우물 안 개구리 격. 도전과 용기, 모험심이 요구된다. 개, 양, 소띠의 도움을 받으면 수월하겠고 3, 5월생은 4, 9, 12월생과 동업하면 길할 듯. 가정의 평안이 만사의 근원임을 알라.



▶**띠** 인생은 한풀 풀기. 빨리 갈 때도 있고 나무뿌리나 바위에 부딪쳐 굽이쳐야 할 때도 있다. 그래도 거부 않고 가면 바다라는 넓은 엄마의 품이 기다리고 있다. 무리한 자신을 비관 말라. 퇴행을 자조함이다.



▶**띠** 모든 일이 마음먹은대로 따라가 주지 않으니 심신이 지쳐 자포자기 상태구나. 노력 없이 이득을 얻으려 하지 마라. 지혜와 뜻을 모으고 시야를 넓혀 활동함이 좋을 듯. 1, 4, 8, 9월생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라. 애정에 금이 간다.



▶**띠** 생활의 리듬이 깨지면 전체가 흔들리는 법. 생각은 장대하고 행함은 작으니 신중을 기해라. 타인의 충고는 자기 발전과 자아 성찰의 계기가 되는 법. 3, 5, 12월생은 서, 북 사람의 조언을 받아 들여야 할 때. 7, 8, 천성끼리, 마, 비 성끼와 동업은 금물.